구분	문제	정답	해설
1	다음 밑줄 친 부분을 추측을 나타내는 「でしょう」의 표현으로 올바르게 고친 것을 찾으세요. これは先生のかばんではありません。 이것은 선생님의 가방이 아닙니다.	2	「でしょう」는 보통형에 접속이 되므로 「かばんではありません」의 보통형인 「かばんではない」뒤에 올 수 있다. 「これは先生のかばんではないでしょう。이것은 선생님의 가방이 아니겠지요.」
2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추측표현을 고르세요. A:来週、旅行に行きます。 다음주에 여행 갑니다. B:_____かもしれませんから、薬を持って行きましょう。 감기에 걸릴지도 모르니까 약을 가지고 갑시다.	1	추측을 나타내는 「かもしれません」는 보통형 뒤에 올 수 있는 표현이므로 4번은 답이 될 수 없다.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추측하는 표현이므로 1번이 답이다. 3번은 과거의 일을 추측할 때 쓰는 표현이므로 답이 될 수 없다.
3	다음의 사항을 가지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 추측해 보세요. 部屋がきれいになりました。 방이 깨끗해졌습니다.	2	왜 방이 깨끗해졌는지를 추측하는 표현이다. 청소를 해서 깨끗해졌다고 추측하는 게 가장 타당성 있으므로 2번이 정답이다. ① 비가 내린다는 것 같아요. ② 청소를 한 것 같아요. ③ 학생인 것 같아요. ④ 좋을 것 같습니다.
4	다음 빈칸에 들어갈 표현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危ないです。花瓶が_____です。 위험해요. 꽃병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3	당장이라도 일어날 것 같은 시각적인 근거에 의한 추측은 「そうだ」로 표현한다. 이때 「そうだ」는 동사의 ます형에 접속되고 뒤에 「です」가 올 때는 어미 가 떨어지므로 3번이 정답이다.
5	다음 빈칸에 들어갈 수 없는 표현을 고르세요 私はパソコン_____アルバイトをしています。 나는 컴퓨터(　　)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1	「~을/를 위해서」의 표현은 「ため(に)」이다. 동사에 접속될 때는 기본형 뒤에 「ため(に)」, 명사에 접속될 때는 「명사のため(に) 」의 형태가 된다. 따라서 답이 될 수 없는 표현은 1번이다.
6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표현을 고르세요 _____今度の試験に合格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 _____이번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1	「おかげで」는 좋은 결과에 대한 원인, 「せいで」는 좋지 않은 결과에 대한 원인을 나타낸다.「おかげで」로 표현된 1번과 3번 중 1번에서 '공부한 덕분에'라고 표현하려면 이미 공부한 사실이므로 과거형에 「おかげで」를 붙여서 「勉強したおかげで」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다.
7	다음 빈칸에 들어갈 수 없는 표현을 찾으세요. A：立派な息子さんですね。もう、大学生になりましたか。 훌륭한 아드님이네요. 벌써 대학생이 되었습니까? B：_____んですよ。 _____이에요.	2	「보통형 + んです」가 현재 긍정의 명사나 な형용사에 접속될 경우, 「명사/な형용사 어간 + なんです」가 된다. 따라서 보기 2는 「優しい子なんです」로 표현해야 한다.
8	다음 빈칸에 들어갈 표현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隣の家で誰かが泣いている_____が聞こえました。 이웃집에서 누군가가 울고 있는 것이 들렸습니다.	1	동사를 명사절로 바꿀 때는 동사 뒤에「~하는 것」에 해당하는 「の」나 「こと」를 접속시켜 표현한다. 단 동사가 「見る, 見える, 聞く, 聞こえる」인 문장에서는 「の」만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다.
9	다음 빈칸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표현을 고르세요 彼はハンサムだ_____、頭もいい_____、お金持ちだから会ってみたいです。 그는 잘 생기고, 머리도 좋고, 부자이기 때문에 만나보고 싶습니다.	3	이유를 나열할 때 사용되는 표현은「し」이다. 제시된 문장에서 그를 만나고 싶은 여러 가지 이유를 나열하고 있으므로 빈칸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표현은 「し」가 된다.
10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표현을 고르세요 A：今度は自信がありますか。 이번에는 자신이 있습니까? B: 頑張りましたけど、_____分かりません。 노력했지만, (　　)모르겠습니다.	4	빈칸에는 문맥상 「보통체 + かどうか(~일지 어떨지)」가 들어가야 하므로 정답은 4번이다. ① 합격하고 싶어서 ②X ③ 합격하고 ④ 합격할지 어떨지
11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표현을 고르세요. お酒を_____顔が赤くなります。 술을 마시면 얼굴이 빨갛게 됩니다.	1	「AとB」는 'A하면 (반드시, 예외 없이, 100%) B가 된다'라는 의미로 술을 마시면 예외 없이 항상 얼굴이 빨갛게 된다고 표현할 경우 '마시면'을 「飲むと」라고 한다. 보기 2번은 「飲んだら」, 3번은 「飲めば」로 활용되어야 하며 4번은 조언할 때 쓰이는 표현이다.
12	다음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표현을 고르세요. A：おいしそうなスープですね。 맛있어 보이는 스프네요. B：冷めない_____、飲んでください。 식기 전에 드세요.	4	「~うちに」는 '~하는 동안에', 「~ないうちに」는 '~하지 않는 동안에, ~하기 전에, ~한 상황이 변하지 않는 동안에' 라는 의미이다.
13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수수표현을 고르세요. 父は私に時計を_____。 아빠는 나에게 시계를 주셨습니다.	3	남이 나에게 무언가를 주었을 때는 「くれる」로 표현하며, 일본어에서 가족끼리는 존댓말을 쓰지 않으므로 '주시다'에 해당하는「くださる」로 표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4	다음 상황을 잘못 표현한 것을 고르세요. 私の友達 ---- 本 ---->　弟	2	내(나의 가족)가 남에게 물건을 받았을 때는 「~に(から)~を~もらう」, 남이 나(나의 가족)에게 무언가를 주었을 때는「~に~を~くれる」를 사용한다. ① 나의 친구가 남동생에게 책을 주었습니다. ② 나의 친구가 남동생에게 책을 받았습니다. ③ 남동생은 나의 친구에게 책을 받았습니다. ④ 남동생은 나의 친구로부터 책을 받았습니다.

15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표현을 고르세요. する　－　します　－　して　－　しない　－　しろ 食べる　－　食べます　－　食べて　－　食べない　－　食べろ 行く　－　行きます　－　行って　－　行かない　－　(　　)	3	상자 안의 동사 나열은 [기본형-정중형-연결형-부정형-명령형]의 순서이다. 1그룹 동사의 명령형은 어미 う단을 え단으로 바꿔야 하므로 「行く」의 명령형은 「行け」가 된다.
16	다음 빈칸에 들어갈 가장 어울리는 표현을 고르세요. 私はいつも母に「早く_____」と言われます。 나는 항상 엄마에게 "빨리 돌아오거라"라고 듣습니다.	3	부드러운 명령표현은 「ます형 + なさい(~하거라)」로 표현해야 하므로 빈칸에는 「帰る」를 변형시킨 「帰りなさい」가 들어가야 한다. ①돌아가지마 ②어서 와 ④돌아가고 싶어, 가고 싶어
17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표현을 고르세요. チェさんのパーティに私は招待_____が、キムさんは招待_____でした。 최○○씨의 파티에 나는 초대받았지만, 김○○씨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4	「招待する(초대하다)」의 수동형은 「招待される(초대받다)」이고 빈칸에는 문맥상 과거형과 과거부정형이 순서대로 들어가야 하므로 정답은 4번이다.
18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표현을 고르세요. 旅行中、雨に_____たり、カメラを　　たりして大変でした。 여행 중에, 비를 맞기도 하고, 카메라를 도난 당하기도 해서 힘들었습니다.	2	「降る(비나 눈이 내리다)」의 수동형은「降られる(비나 눈을 맞다)」, 「盗む(훔치다)」의 수동형은 「盗まれる(도난 당하다)」이다. 빈칸 뒤에는 「たり」가 접속되는데 「降られる」와 「盗まれる」는 2그룹 동사의 형태를 하고 있으므로 어미 「る」를 뗀 「降られ」와 「盗まれ」가 빈칸에 알맞은 표현이 된다.
19	다음 문장을 사역형 문장으로 올바르게 바꾼 표현을 찾으세요. 子供がご飯を食べました。 아이가 밥을 먹었습니다.	1	사역형 활용방법은 1그룹 동사는 う단을 あ단으로 바꾸고 「せる」, 2그룹 동사는 어미 「る」를 떼고 「させる」를 붙이면 되고, 3그룹의 경우 「する」는 「させる」, 「来る」는 「こさせる」 이다. 「食べる」는 2그룹이므로 「食べさせる」가 정답이다.
20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표현을 고르세요. ビールを飲みたくなかったです。でも上司に_____。 맥주를 마시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사가 마시게 해서 억지로 마셨습니다.	4	빈칸에는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하게 되었다는 뉘앙스를 내포하는 사역수동표현이 들어가야 한다. 「飲む」는 1그룹 동사이므로 「あ단 + せられる」 혹은 「あ단 + される」의 꼴로 활용된 「飲ませられる」 혹은 「飲まされる」가 문맥에 적합한 표현이 된다.